

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른 집단분류: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김 은 하[†]
아주대학교

정 채 영
건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완벽성향 척도 개정판의 두 하위요인('높은 기준', '불일치')과 성인애착의 두 차원(불안애착, 회피애착)을 조합할 때 어떤 군집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군집에 따라 외모 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11명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네 군집이 도출되었다. 먼저, '비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은 '높은 기준'과 '불일치' 수준이 낮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은 '높은 기준' 수준은 높지만 '불일치' 수준이 낮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네 집단 중 외모불만족과 우울 수준이 가장 낮고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집단은 '높은 기준'과 '불일치' 수준이 높고 회피애착은 낮지만 불안애착은 높은 집단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외모지향성과 이상섭식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단은 '높은 기준' 수준은 낮지만 '불일치' 수준이 높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네 집단 중 외모불만족과 우울 수준이 가장 높고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완벽주의, 성인애착,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김은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울곡관 508호

Tel : 031-219-2787, E-mail : eunkim@ajou.ac.kr

다양한 정신건강의 지표(예. 우울, 불안, 대인관계만족도)를 예측하는 심리적 특성 중 하나로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다. 완벽주의란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성격 특성을 의미한다(Hewitt & Flett, 1991). 과거 완벽주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면이 부각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면과 적응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이아람, 이정윤, 2015; Rice & Mirzadeh, 2000).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접근을 토대로 실시되었다(Stober & Otto, 2006). 첫 번째는 차원적 접근으로 요인분석과 상관분석을 통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의 하위요인들을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정상목, 이동귀, 2013). 두 번째는 집단적 접근으로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완벽주의의 하위 집단을 도출하고 이 집단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차원적 접근을 사용한 연구들은 여러 이유에서 지적을 받아왔는데, 특히 완벽주의의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이 개념적으로 서로 중첩되고, 연구마다 각 차원에 속하는 하위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었다(박현주, 정대용, 2010). 이에 반해 집단적 접근의 연구들은 완벽주의의 하위 집단을 구별하고 그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개념적 중첩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상당 현장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집단적 접근을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비완벽주의,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라는 세 하위 집단이 나타났다. 특히 완벽성향

척도 개정판(Almost Perfectionism Scale-Revised; APS-R, Slaney, Rice, Mobley, Trippi, & Ashby, 2001)의 하위요인인 '높은 기준'(스스로에 대한 성취 기준이 높음)과 '불일치'(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괴리가 큼)를 군집변인으로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들(Ashby, Rice, & Kutchins, 2008; Dickinson & Ashby, 2005; Grzegorek, Slaney, Franze, & Rice, 2004; Martin & Ashby, 2004; Rice & Ashby, 2007; Rice & Slaney, 2002)에서 이와 같은 세 하위 집단이 확인되었다. 비완벽주의 집단은 '높은 기준'과 '불일치'가 모두 낮은 집단을 의미하고,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은 '높은 기준'은 높으나 '불일치'는 낮은 집단을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은 '높은 기준'과 '불일치'가 모두 높은 집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APS-R의 '높은 기준'과 '불일치'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해외의 연구들과 동일하게 세 집단이 나타났다(정상목, 이동귀, 2013).

이 세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 자존감,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 낮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다(Rice & Ashby, 2007; Rice & Dellwo, 2002). 또한 비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낮은 수동적 지연행동, 우울, 대인관계 문제를 보인 반면에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주, 정대용, 2010; 정상목, 이동귀, 2013). Rice와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Rice & Ashby, 2007; Rice & Dellwo, 2002), 적응적 완벽주의자는 높은 성취를 지향하지만 자존감은 유지하며 자신의 수행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실수에 대한 염려, 자기 비판적 경향, 열등감이 지나치

게 높고 자신의 수행이 성공적이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또한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또 다른 도구인 Frost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rost-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연구들도 있었다. 이 척도는 APS-R과 달리 6개의 하위요인(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현주와 정대용(201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Frost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사용하여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비완벽주의자 집단을 발견하였다. 또한 김현희와 김창대(2011)는 F-MPS의 평가염려(‘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와 ‘개인기준’의 두 가지 차원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평가염려 완벽주의, 개인기준 완벽주의, 비완벽주의 집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세 집단이 보고되었지만, 대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APS-R를 실시한 Wang, Slaney와 Rice(2007)의 연구에서는 이 세 집단 외에 ‘부정적 자기평가’라는 네 번째 하위 집단이 나타났다. 이 집단은 ‘높은 기준은 낮지만 ‘불일치’가 높은 집단으로, 자신의 기준은 낮지만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괴리감이 큰 것이 특징이다. Wang 등(2007)은 ‘부정적 자기평가’ 집단이 느끼는 높은 괴리감은 자기가 아닌 중요한 타인(예. 부모)이 자신에게 부여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집단은 대만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부모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개인에

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가령, 대만의 대학생들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부모의 돌봄에 보답하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Chow & Chu, 2007) 자신이 세운 기준이 낮더라도 부모의 기준이 높으면 ‘불일치’를 높게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대만과 비슷하게 집단주의 문화권임을 고려할 때 한국 대학생들에서도 이 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년 실업난’, ‘일등 신드롬’, ‘취업 스펙 쌓기’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가 대학생들의 ‘부정적 자기평가’ 집단의 성향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여대생들은 남자대학생들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상호의존적 자아를 형성하기 때문에(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 타인의 높은 기준을 내면화하고 이에 따라 자기를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부정적 자기평가’ 집단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완벽주의에 따른 개인차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애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완벽주의가 대인관계(예. 부모, 가족, 다른 사회적 지지원)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Rice, Lopez, & Vergara, 2005). 고전적 애착이론에 따르면, 생애 초기 주 양육자(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내적작동모형(internal working model)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와 대인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Bowlby, 1988).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발달 초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이 또래, 교사, 연인과의 관계에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의 성격특성이나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아닌 친밀한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 수준을 대변하는 성인애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졌다(Hazan & Shaver, 1987).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성인 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라는 독립적인 두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불안애착은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반영하고, 회피애착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의 정도를 반영한다. 즉, 불안애착은 부정적인 자기표상과 관련이 있고, 회피애착은 부정적인 타인표상과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애착차원이 모두 높은 경우는 불안정한 애착, 모두 낮은 경우는 안정애착이라고 볼 수 있으며(Lopez & Brennan, 2000), 애착차원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성격, 대인관계 패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완벽주의와 양가적(bidirectional) 관련성이 있다. 즉,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에서 완벽주의로 가는 경로와 완벽주의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ice, Lopez, & Vergara, 2005; Wei, Heppner, & Mallinckrodt, 2003). 또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불안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반면에 회피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Wei, Mallinckodt, Russell, & Abraham, 2004). Wei와 동료들의 후속 연구(2006)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대처전략을 예측하고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비효율적 대처전

략을 통해 우울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완벽주의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ice & Lopez, 2004). 예를 들어, Wei 등(2006)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짐에 따라 불안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성인애착과 완벽주의의 인과적 관련성 보다는 이 두 변인을 조합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내담자의 특성과 상담개입전략을 구상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완벽주의와 성인 애착의 조합에 따른 하위 집단을 살펴본 국내 연구로는 김민선과 서영석(2010)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사회비과적 완벽주의, 수행완벽주의, 불일치)와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하위 집단들의 심리적 특성(사회적 효능감, 자아존중감, 감정적 반응, 정서적 단절, 우울, 불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행완벽-불안정애착집단, 수행완벽-회피애착집단, 비완벽-안정애착집단 등 3개의 하위 집단이 나타났는데, 수행완벽-회피애착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사회적 효능감이 낮고, 비완벽-안정애착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행완벽-불안정애착집단이 감정적 반응을 가장 많이 하는 반면에 수행완벽-회피애착집단과 비완벽-안정애착집단은 정서적 단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과 불안의 경우, 수행완벽-불안애착집단과 수행완벽-회피애착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두 집단 모두 비완벽-안정애착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선과 서영석(2010)의 연구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을 조합하여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부정적 측면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을 조합했을 때 어떤 하위 집단들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만큼,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완벽주의의 하위 집단에 대해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우울, 불안, 자존감, 및 대인관계문제와 같은 변인에 한정되어 있어 좀 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완벽주의의 조합으로 나타난 하위 집단을 살펴보고 하위 집단에 따라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외모불만족과 외모지향성에 대해 살펴보면, 이 두 변인은 부정적 신체이미지(개인이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갖는 감정과 태도)와 그에 따른 행동을 대변하는 대표적 변인들이다(Cash, Theriault, & Annis, 2004). 신체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Brown, Cash 그리고 Mikulka(1990)가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적 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Questionnaire; MBSRQ)를 개발하면서 활성화되었는데, MBSRQ는 크게 감정적 차원인과 인지/행동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적 차원은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와 같은 외모와 신체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와 태도를 측정하는 반면에 인지/행동적 차원은 외모지향성(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외모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외모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는 외모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MBSRQ의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 하위척도를 사용하였고 외모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외모지향성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매체와 패션사업이 발달하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를 가꾸는 행동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고,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이상적인 미의 기준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면서 불만을 느끼고 있다(김완석, 김정식, 2007).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스트레스나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초래하고, 심각한 경우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남인수, 임승현, 2010; 이수현, 현명호, 2001).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아름다운 외모와 마른 몸매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외모불만족이 높고(김완석, 김정식, 2007), 그 결과로 이상섭식행동과 섭식장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Van den Berg, Wertheim, Thompson, & Paxton, 2002; Cook & Hausenblas, 2011).

이상섭식행동은 정상적인 섭식행동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거식행동(음식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전혀 섭취하지 않는 행위), 폭식행동(단시간 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확연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섭식통제행동(일부러 음식을 억제하거나 조금씩 먹거나 작게 잘라서 먹는 행위) 등이 있다(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이러한 이상섭식행동이 심각해지면,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혹은 폭식장애 등의 섭식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섭식장애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영양실조나 위궤양과 같은 의학적 합병증을 일으키며 우울장애, 약물

사용 장애, 불안장애 등의 공존장애를 지니는 심각한 정신질환이다(류애리, 송원영, 2013).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및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로 완벽주의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특히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를 초래하고 유지시키는 주요 변인이며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감소가 섭식장애증상을 완화시키는 변화 기제인 것으로 드러났다(서민정, 손정락, 2015; Fairburn, Cooper, & Shafran, 2003).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임상적 완벽주의(clinical perfectionism)'으로 개념화한 Shafran, Cooper 와 Fairburn(2002)은 임상적 완벽주의를 부정적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경직된 생각과 그로 인한 자기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섭식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은 심각한 부작용(예. 과도한 저체중, 영양결핍, 음식에 대한 강박적 사고)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세워놓은 식사량, 체중, 몸매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과도하게 노력하고 그 결과로 자신을 평가하는데, 이는 이들의 임상적 완벽주의가 높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외모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된 반면에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이 외모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 결과들도 일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Probst, Van Coppenolle과 Vandereycken (1995)의 연구에서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신체이미지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Iannantuono와 Tylka(2012)의 연구에서 적응적 완벽주의는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애착과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및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Kuipers & Bekker, 2012; Zachrisson & Skarderud, 2010)도 혼재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가령, 일부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외모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Koskina & Giovazolias, 2010), 다른 연구에서는 회피애착만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kanalis 외, 2014). 이에 반해 Cash, Theriault와 Annis (2004)의 연구와 McKinley와 Randa(2005)의 연구에서는 불안애착만이 외모불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두 변인이 상호작용하여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및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지만 Dakanalis 외(2014)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같은 성격변인이 성인애착과 외모불만족 및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를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완벽주의의 조절 효과는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조합해서 살펴보는 것이 내담자들의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및 이상섭식행동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의 조합으로 나타난 하위 군집이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종속 변인으로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심리학 연구자들은 우울을 정신건강의 지표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긍정심리이론의 영향으로 우울과 같은 부정적 지표와 더불어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지표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

가 늘어나고 있다(이진주, 김은정, 2015). 긍정 심리이론과 경험연구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심리 건강의 부정적 지표와 긍정적 지표는 서로 연관성이 있지만 독립적인 개념으로 부정적 지표의 부재가 항상 긍정적 지표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nyder & McCullough, 2000). 따라서 한 개인의 심리건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심리 건강의 부정적 지표와 긍정적 측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은 증상완화를 통해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치료적 측면과 심리문제가 없는 내담자의 성장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발달 및 교육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정상목, 이동귀,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의 조합에 따른 각 하위 집단이 치료 혹은 발달 및 교육 중 어느 측면의 상담이 더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심리건강의 대표적 지표인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은 양가적 관련성을 가지며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를 초래하는 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APS-R로 측정된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높은 기준'과 '불일치')과 성인애착의 차원(불안애착과 회피애착)에 따른 하위 집단과 각 집단이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 점수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대생의 완벽주의 하위요인('높은 기준'과 '불일치')과 성인애착의 차원(불안애착과 회피애착)에 따라 어떤 군집이 형성되는가? 특히 Wang, Slaney와

Rice(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적 자기평가가 한국 여대생에게 존재하는가? 둘째, 여대생의 완벽주의 하위요인과 성인애착을 조합하여 형성된 하위 집단들은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 점수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한국에서 거식증과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이 무려 19% 가량이나 증가했는데, 섭식장애 환자 2명 중 1명이 10~20대 젊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유리, 김남중, 2013). 이와 같이 식이관련 문제가 한국 젊은 여성의 심리건강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의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전략을 구상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2015년 9월 3일부터 2015년 11월 15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소재 3곳의 대학교에서 심리학 및 교육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거나 심리학과 학생회 혹은 봉사 관련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응답을 실시하였다. 총 23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21부가 수거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정보가 누락된 10부를 제외한 211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설문 시작 전 연구 참가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설문지 응답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설문 참가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없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3세($SD = 2.75$)이었다. 참여자들의 현재 키는 160~165cm 76명(36%), 155~160cm 57명(27%), 165~170cm 43명(20.4%)이었고, 희망하는 키는 165~170cm 96명(45.5%), 160~165cm 91명(43.1%)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현재 체중은 49~52kg 59명(28%), 45~48kg 44명(20.9%), 57~60kg 41명(19.4%), 53~56kg 37명(17.5%)이었고, 희망하는 체중은 49~52kg 75명(35.5%), 45~48kg 72명(34.1%), 53~56kg 42명(19.9%)이었다.

측정 도구

완벽주의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Slaney, Rice, Mobley, Trippi와 Ashby(2001)가 개발하고 박현주(2009)가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완벽주의 성향 척도 개정판(Almost Perfect Scale-Revised: APS-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인 높은 기준(High Standard), 정돈(Order), 불일치(Discrepancy)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기준(5문항)은 자신의 수행에 대한 높은 기준(예.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정돈(4문항)은 정리정돈에 대한 높은 기준(예. “나는 정리정돈을 잘 한다”), 불일치(10문항)은 높은 기준과 지각된 실제 성취간의 불일치로 인한 격차(예. “나는 높은 기준에 도달한 적이 거의 없다”)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Rice, Ashby와 Gilman(2011)이 제안한대로 높은 기준과 불일치만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높은 기준 혹은 불일치)의 성향이 강한 것

을 의미한다. 박현주(2009)의 연구에서는 높은 기준과 불일치의 신뢰도 계수가 각각 .79와 .88, 정상목과 이동귀의 연구(2013)에서는 .82와 .91이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3과 .92로 나타났다.

성인애착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개발하고,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정하고, 김성현(2004)이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친밀한 관계경험검사 개정판(Encounter in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ECRS-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2개의 하위 척도인 불안(Anxiety)애착과 회피(Avoidance)애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애착(18문항)은 타인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관계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된다”)을 측정하는 것에 반해 회피애착(18문항)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편함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피하는 것(예.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불안애착 혹은 회피애착)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조화진과 서영석(2011)의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93과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와 .93으로 나타났다.

외모불만족과 외모지향성

본 연구에서는 외모불만족과 외모지향성

을 측정하기 위해 Brown, Cash와 Mikulka (1990)가 개발하고 고애란과 조선명(2001)이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를 사용하였다. 특히 이 척도의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하위척도인 감정적 차원(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과 인지/행동적 차원(외모지향성)을 사용하였다. 외모평가(5 문항)는 자신의 외모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예.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를 측정하며, 신체만족도(5문항)는 신체의 여러 부분(예. 얼굴, 머리, 피부, 하체, 상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의 문항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불민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외모지향성(12문항)은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체적 외모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려고 하는가에.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살펴본다”)를 측정한다. 외모지향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지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외모불민족과 외모지향성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8, .89로 나타났다.

이상섭식행동

본 연구에서는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하고 이민규 등(1998)이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단축형 식사태도 검사(Eating Attitudes Test-26; EAT-2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식사에 대한 자기통제와 대식증적 증상,

날씬함에 대한 집착, 음식에 대한 집착,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의 네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척도별 점수는 산출하지 않았고,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지연, 신민섭, 김은정의 연구(2011)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우울 정서 7문항, 긍정 정서 4문항, 신체적 저하 2문항, 대인관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극히 드물게, 4점=거의 대부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on, 그리고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안신능(2006)이 한국어로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안신능(2006)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먼저, 완벽주의의 두 하위요인(높은 기준, 불일치)과 성인애착의 두 차원(불안애착, 회피애착) 점수를 z점수로 바꾼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Ward와 K-means의 2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1단계에서는 Wards의 위계적 군집 분석 방법을 2단계에서는 비위계적 군집 분석인 K-means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하위 집단에 따라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를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완벽주의의 두 하위요인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높은 기준은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회피애착, 외모불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불일치는 불안애착, 회피애착, 외모불만족, 이상섭식행동,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불안애착은 회피애착, 외모불만족, 이상섭식행동,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회피애착은 외모불만족과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모지향성과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

표 1.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높은기준	-	.01	.02	-.29**	-.41**	.50**	.17**	-.12	.38**
2. 불일치		-	.66**	.54**	.25**	-.06	.27**	.63**	-.30**
3. 불안애착			-	.49**	.24**	.11	.35**	.59**	-.11
4. 회피애착				-	.35**	-.30**	.01	.53**	-.36**
5. 외모불만족					-	-.26**	-.01	.20**	-.49**
6. 외모지향성						-	.35**	-.03	.24**
7. 이상섭식행동							-	.36**	-.10
8. 우울								-	-.35**
9. 삶의 만족도									-
M	6.15	4.52	3.78	4.17	3.17	3.05	3.12	2.13	3.78
SD	1.39	1.31	1.02	1.26	.78	.36	.69	.63	1.11

** $p < .01$

다. 외모불만족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외모지향성은 이상섭식행동,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상섭식행동은 우울과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류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완벽주의의 두 하위요인(높은 기준과 불일치)과 성인애착의 두 차원(불안애착, 회피애착)의 z점수를 군집변인으로 설정하고,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Ward와 K-means의 2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Wards방법과 Squared Euclidean 거리를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변화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4개의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군집 1은 67명(41.2%), 군집 2는 59명(27.9%), 군집 3은 51명(20.0%), 군집 4는 34명(10.9%)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고 군집명을 정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군집 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M = 0, SD = 1$). 군집 1은 높은 기준과 불일치가 평균 이하로 완벽주의 성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도 평균 이하로 나타나 '비완벽주의-안정애착'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높은 기준은 평균 이상, 불일치는 평균 이하였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평균 이하로 '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높은 기준과 불일치가 평균 이상이었으며, 불안애착은 평균 이상이었으나 회피애착은 평균 이하로 나타나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4는 높은 기준은 평균 이하, 불일치는 평균 이상이었으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평균 이상

표 2. 군집별 중심점표

		군집 1 (n = 67)		군집 2 (n = 59)		군집 3 (n = 51)		군집 4 (n = 34)		F	사후검증
군집 변인		M	SD	M	SD	M	SD	M	SD		
완벽주의	높은기준	-.40	.42	.87	.48	1.16	.65	-1.68	.81	111.59***	3>2>1>4
	불일치	-.35	.23	-.89	.69	1.24	.73	1.25	.71	114.24***	4, 3>1>2
성인애착	불안애착	-.13	.51	-.79	.71	1.04	.95	1.26	1.54	62.25***	4, 3>1>2
	회피애착	-.38	.58	-1.08	.71	-.02	.22	1.33	.34	99.64***	4>1, 3>2

주: 최종군집별 중심점은 표준화된 점수임: $M = 0, SD = 1$

*** $p < .001$; 사후검증의 유의도는 $p < .05$ 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으로 나타나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네 개의 군집이 완벽주의 두 하위요인과 성인애착 두 하위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Box의 동질성 검정결과 집단의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F(20, 28529.38) = 9.50, p < .001$], Pillai's Trace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변량 분산분석 전체에 대해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Pillai's Trace = 1.45, $F(3, 203) = 45.51, p < .001$]. 네 개의 군집은 높은 기준, 불일치, 불안애착, 회피애착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높은 기준, $F(3, 203) = 93.25, p < .001$; 불일치, $F(3, 203) = 114.24, p < .001$; 불안애착, $F(3, 203) = 62.25, p < .001$; 회피애착, $F(3, 203) = 99.64, p < .001$].

구체적으로 어떤 군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Type I 오류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Bonferroni를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Gelman, Hill, & Yajima, 2012). 그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군집 1(비완벽주의-안정애착)은 높은 기준이 군집 4(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보다 높지만 군집 2(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와 군집 3(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일치와 불안애착은 군집 2(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에 비해 높지만 군집 3(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과 4(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는 다른 세 군집에 비해 불일치, 불안애착, 회피애착이 낮고, 군집 4(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에 비해 높은 기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집 3(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은 다른 세 군집에 비해 높은 기준이 높고,

군집 1(비완벽주의-안정애착)과 2(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에 비해 불일치가 높은 반면 군집 4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군집 4(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는 다른 세 군집에 비해 높은 기준이 가장 낮고, 회피애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집별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의 차이

연구문제 2, 즉 네 군집이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Box의 동질성 검정결과 집단의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F(30, 61557.21) = 2.42, p < .001$], Pillai's Trace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변량 분산분석 전체에 대해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Pillai's Trace = .87, $F(3, 197) = 17.42, p < .001$]. 네 개의 군집은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삶의 만족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외모불만족, $(3, 203) = 17.86, p < .001$; 외모지향성, $F(3, 203) = 27.88, p < .001$; 이상섭식행동, $F(3, 203) = 9.93, p < .001$; 우울, $F(3, 203) = 45.27, p < .001$; 삶의 만족도, $F(3, 203) = 12.77, p < .001$].

구체적으로 어떤 군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를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외모불만족은 군집 4(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군집 3(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이 군집 1(비완벽주의-안정애착)과 군집 2(적응

표 3. 외모불만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종속변인	군집 1 (n = 67)		군집 2 (n = 59)		군집 3 (n = 51)		군집 4 (n = 34)		F(2, 203)	사후검증
	M	SD	M	SD	M	SD	M	SD		
외모불만족	2.83	.67	2.79	.77	3.59	.89	4.36	.30	19.19***	4>3>1, 2
외모지향성	2.93	.30	3.15	.32	3.28	.36	2.53	.04	25.06***	3>2>1>4
이상섭식행동	3.03	1.14	2.99	.96	3.68	1.33	2.88	.65	9.31***	3>1, 2, 4
우울	1.91	.41	1.52	.33	2.35	.50	2.63	.35	46.09***	4>3>1>2
삶의 만족도	3.76	1.43	4.25	1.09	3.25	.60	2.10	.40	13.09***	2>1>3>4

*** $p < .001$; 사후검증의 유의도는 $p < .05$ 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적 완벽주의-안정애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지향성은 군집 3(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이 가장 높고 군집2(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와 군집1(비완벽주의-안정애착)이 중간, 군집 4(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섭식행동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군집 3(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이 가장 많은 이상섭식행동을 보였고, 다른 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울의 경우, 군집4(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 애착)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군집 3(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애착 유형의 두 집단인 군집 1(비완벽주의-안정애착)과 군집 2(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의 경우 군집 1이 군집 2에 비해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군집 2(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군집1(비완벽주의-안정애착)과 군집 3(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은 중간, 군집 4(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 애착)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의 조합으로 발생하는 하위 집단을 살펴보기 위해, APS-R의 두 하위요인인 ‘높은 기준’과 ‘불일치’와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군집변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출된 하위 집단들이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종속변인들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 젊은 여성의 섭식장애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외모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이 여대생의 정신건강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문제 1인 한국 여대생의 완벽주의 하위요인(‘높은 기준’과 ‘불일치’)과 성인애착의 차원(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조합에 따른 집단을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4개의 집단이 나타났다. 먼

저 '비완벽주의-안정애착'은 높은 기준과 불일치 수준이 낮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도 낮은 집단이었다. 또한 '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은 높은 기준은 높으나 불일치 수준은 낮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낮은 집단이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은 높은 기준과 불일치 수준이 높고 회피애착은 낮지만 불안애착이 높은 집단이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은 높은 기준은 낮으나 불일치 수준이 높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집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대학생 혹은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집단을 적응적, 부적응적, 비완벽주의 집단으로 구분한 선행연구(박현주, 정대용, 2010; 정상목, 이동귀, 2013; Ashby, Rice, & Kutchins, 2008; Grzegorek, Slaney, Franze, & Rice, 2004; Rice & Ashby, 2007; Rice & Slaney, 2002)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ang, Slaney와 Rice(2007)의 연구와 동일하게 '부정적 자기평가'라는 집단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로는 처음으로 '부정적 자기평가'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만과 비슷하게 한국의 부모도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자식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기 때문에 한국의 여대생들은 자신이 세운 기준이 낮다 하더라도 부모의 높은 기대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불일치를 느낄 수 있다(K. S. Yang, 1997). 또한 최근 한국의 대학생들이 과도한 경쟁 문화 속에서 높은 기준과 스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정상목, 이동귀, 2013) '부정적 자기평가' 집단이 존재하는 것은 놀랍지 않은 결과라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의견이나 기준을 내재화하는 경향이 높은 여대생(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정적 자기평가'집단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표본에서 이 집단의 존재와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네 집단은 성인애착을 범주적 차원으로 정의한 학자들의 성인애착 분류와 일부 일치한다. 성인애착의 범주적 차원에 의하면, 성인애착은 자기 표상과 타인의 표상의 조합에 따라 안정형(긍정적 자기표상과 긍정적 타인표상), 몰입형(부정적 자기표상과 긍정적 타인표상), 거부형(긍정적 자기표상과 부정적 타인표상), 두려움형(부정적 자기표상과 부정적 타인표상)으로 구분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이 네 유형 중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모두 높은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 애착 집단은 두려움 애착유형과 유사하고, 회피애착은 낮지만 불안애착은 높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 애착 집단은 몰입형과 유사하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모두 낮은 비완벽주의-안정애착과 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은 안정형과 비슷하다. 이와 더불어 적응적 완벽주의와 안정애착이 한 집단으로 묶이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불안애착이 한 집단으로 묶인 것은 완벽주의가 적응적 형태로 나타날지 혹은 부적응적 형태로 나타날지 예측하는 요인으로 대인관계의 질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Rice & Mirzadeh, 2000; Wei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네 집단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론적 주장 및 경험적 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부적응적 완벽주

의가 높으면서 안정애착을 보이는 여대생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김민선과 서영석(2010)의 제안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수를 늘려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면서도 안정애착을 보이는 여대생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의 조합으로 따라 네 집단들이 외모불만족과 외모지향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집단과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애착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Pearson과 Gleaves(2006)의 연구와 Iannantuono와 Tylka(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불안애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기준에 민감하고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함으로써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고 외모에 대해 불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선행연구(Cheng & Mallinckrodt, 2009)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과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애착 집단의 외모불만족과 외모지향성을 비교한 결과, 전자가 외모지향성이 더 높고 후자가 외모불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집단은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느낄수록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애착 애착집단은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으므로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이유로는, 두 집단 모두 불안애착이 높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평가에 민감하여 외모불만족이 높지만,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애착 집단은 회피애착도 높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평가에 민감하면서도 이에 행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외모지향성이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반해 비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과 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외모불만족을 보였고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적응적 완벽주의가 신체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신체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며 신체적 결함보다는 신체적 장점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Avalos, Tylka와 Wood-Barcalow(2005)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셋째, 집단별로 이상섭식행동에서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이상섭식행동을 보였고, 나머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불안애착이 섭식장애를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Cash, Theroault, & Annis, 2004).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집단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외모지향성이 높기 때문에 이상섭식행동을 통해서라도 외모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노력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기준과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불일치를 외모로 보상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 이상섭식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Sassaroli & Ruggiero, 2005).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완벽주의 성향은 없지만 불안정 애착이 높은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단이 안정애착을 보인 비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이나 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과 이상섭식행동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불일치가 높은 경우에도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다면 이상섭식행동에 취약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여대생의 이상섭식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집단별로 우울과 삶의 만족도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가장 높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비완벽주의-안정애착, 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의 순으로 우울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단과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집단의 우울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이유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불일치가 높고 안정애착이 낮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단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 집단에 비해 높은 우울과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가능성은 이들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어린 시절 부모의 높은 기준과 엄격한 잣대를 맞추

지 못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적응적 완벽주의-불안애착은 자신의 수행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고, 이러한 자신에 대한 기대는 우울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모두 높은 사람들이 지닌 관계적 특성을 통해 이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 불안애착만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의 관심과 승인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대인관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민선, 서영석, 2010), 부적응적-완벽주의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울수준과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반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모두 높은 경우, 즉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단은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 욕구를 부정하고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려한다(Lopez & Brennan, 2000). 따라서 이들은 우울에 취약하고 낮은 삶의 만족도를 느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후속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된다면, 상담자는 완벽주의 성향이 없는 내담자일지라도 만약 불일치가 높거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으면 우울에 취약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반면, 적응적 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이 비완벽주의-안정애착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낮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이 비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우울정도가 낮다고 보고한 정상목, 이동귀(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높은 성취와 스펙을 중시하

는 한국 사회에서 높은 기준을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이 여대생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Dunkley 등(2003, 2006)이 주장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핵심 특징과 결부시켜 논의될 수 있다. Dunkley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를 구분 짓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특징으로 자기비난 혹은 부정적 자기평가를 꼽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부정적 자기평가'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외모불만족과 우울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자기비난 혹은 부정적 자기평가가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되는 상담적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일치를 높게 지각하는 여대생을 상담할 때, 상담자는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자신에게 부과한 기준이 높은지, 자신이 만족시킬 수 없는 기준이 자신의 기준인지 혹은 타인의 기준인지, 그리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담자가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인지 아니면 부정적 자기평가 집단인지 평가할 수 있고, 만약 내담자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인다면 외모불만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외모지향성을 통해 이상섭식행동을 보이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불안애착이 높으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내담자는 이상섭식행동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내담자에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담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속적인 고 긴밀한 치료적 관계를 통해 자존감을 향상

시키고 불안애착이 좀 더 안정적인 패턴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교정적 정서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나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추구하는 기준이 비합리적임을 깨닫고 현실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조력한다. 셋째, 수용전념개입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불일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또 다른 상담적 함의점은 부정적 자기평가-불안정애착 집단의 특성을 보이는 내담자의 경우 좀 더 조심스러운 상담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내담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이 부과한 높은 기준으로 불일치를 지각하고 있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모두 높기 때문에 상담 초기에 상담자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상담관계 형성에 거부적이며 중도탈락(drop-out)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담 초기에는 감정탐색이나 표현 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방하기 쉬운 타인이 부과한 높은 기준과 이로 인한 불일치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인지기법을 통해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세우고 싶은 기준을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비완벽주의 내담자가 적응적 완벽주의 내담자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완벽주의 성향이 없는 여대생들도 치료 측면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비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내담자가 어떻게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한국사회에서 낮은 기준을 세우게 되었는지 탐색하고 혹시 경험하고 있을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무기력감에 대해 다

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내담자의 경우 다른 집단의 내담자들에 비해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우울 수준이 낮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치료적 관점 보다는 발달 및 교육적 관점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적응적 완벽주의자가 계속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인 삶을 살 때 자신의 가치를 성취로만 평가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불일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군집분석 자체가 표본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표본에 따라 다른 군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다른 여대생 집단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네 개의 군집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표본을 늘리고 교차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APS-R만 사용해서 네 집단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사후 연구에서는 Hewitt와 Flett (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특히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하위차원을 사용하여 누가 높은 기준을 부과했느냐에 따른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후, 완벽주의 하위유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법이나 중요한 타인의 평정을 사용하여 네 집단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이상섭식행동의 하위유형(거식증, 폭식,

섭취제한)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Favaro, Ferrara와 Santonastaso(2003)가 제시한 섭식장애의 범진단적 모델에 따르면, 섭식장애의 하위유형들이 상이한 증상을 보이지만 유사한 특징(예. 낮은 자아존중감, 체중이나 외모에 대한 과대평가)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라 다른 종류의 이상섭식행동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APS-R을 포함한 기존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Shafran, Cooper와 Fairburn(2002)은 다차원적인 접근이 완벽주의의 구성개념을 지나치게 확장시켰고,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은 완벽주의의 핵심특성이 아닌 관련 특성들을 측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완벽주의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아닌 인지행동적 접근을 제안하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임상적 완벽주의(clinical perfectionism)’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념화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임상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완벽주의의 두 측면(적응적, 부적응적)과 성인애착의 두 차원(불안애착, 회피애착)을 조합하여 여대생의 하위 집단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기준은 낮지만 불일치가 높은 부정적 자기평가 집단이 한국의 여대생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고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라 외모불만족, 이상 섭식행동, 우울, 삶의 만족도가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성인

애착에 따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애란, 조선명 (2001).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한국의복학회지*, 25(7), 1227-1238.
- 김민선, 서영석 (2010).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른 집단 분류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13-434.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완석, 김정식 (2007). 동아시아 여대생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 113-134.
- 김현희, 김창대 (2011). 완벽주의자 하위유형분류연구 - 평가염려, 개인기준 완벽주의자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33-391.
- 남인수, 임승현 (2010). 고등학생의 신체상 자기차이가 신체적 자기개념, 우울,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9(1), 363-375.
- 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471-490.
- 류애리, 송원영 (2013).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2), 345-362.
-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1), 417-435.
- 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신체에 대한 수치심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63-679.
- 박현주 (2009).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ts in Korean college students.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37-354.
- 박현주, 정대용 (2010). 완벽주의 하위집단의 특징: 지연행동, 문제해결 평가, 대인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5), 975-991.
- 서민정, 손정탁 (2015).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가 대학생들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신체 불만족 및 신체상의 암묵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47-566.
- 안신능 (2006). 자기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삶의 만족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규, 이 호, 박세현, 손창호, 정영조, 홍성국 (1998). 한국판 식사 태도검사-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s Test-26: KEAT-26) 표준화 연구 1: 신뢰도 및 요인 분석. *정신신체의학*, 6(2), 156-175
- 이수현, 현명호 (2001). 여중생의 비만도와 신체상 만족도 및 폭식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195-207.

- 이아람, 이정운 (2015). 대학생의 완벽주의 특성에 따른 군집유형. *상담학연구*, 16(3), 215-231.
- 이유리, 김남중 (2013). 여자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대학생활 적응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97-120.
- 이진주, 김은정 (2015). 수용적 긍정심리치료가 우울한 대학생의 우울 증상 및 행복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2), 477-503.
-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D-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상목, 이동귀 (2013).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하위집단의 특징: 수동적/능동적 지연행동, 행복, 우울에서의 차이. *상담학연구*, 14(2), 857-875.
- 조화진, 서영석 (2013).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71-490.
- Ashby, J. S., Rice, K. G., & Kutchins, C. B. (2008). Matches and mismatches: Partners, perfectionism, and pre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 125-132.
- Avalos, L. C., Tylka, T. L., & Wood-Barcalow, W. (2005). The Body Appreciation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Body Image*, 2, 285-297.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Clark, C., & Shaver, P.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Simpson and W.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5). New York: Guilford.
- Brown, T. A., Cash, T. F., & Mikulka, P. J. (1990). Attitudinal body-image assessment: Factor analysis of the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135-144.
- Cash, T. F., Theriault, J., & Annis, N. M. (2004). Body image in an interpersonal context: Adult attachment, fear of intimacy,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89-103.
- Cheng, H., & Mallinckrodt, B. (2009). Parental bonds, anxious attachment, media internalization, and body image dissatisfaction: Exploring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 365-375.
- Chow, S. S. Y., & Chu, M. H. T. (2007). The impact of filial piety and parental involvement on academic achievement motivation in Chinese secondary school students. *Asian Journal of Counseling*, 14, 91-124.
- Cook, B., & Hausenblas, H. A. (2011). Eating disorder-specific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exercise in college females. *Quality of Research*, 20, 1385-1390.
- Dakanalis, A., Timko, C. A., Zanetti, M. A., Rinaldi, L., Prunas, A., Carra, G., Riva, G., & Clerici, M. (2014). Attachment insecuritie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A latent mediated and moderated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across diagnostic groups. *Psychiatry Research*, 215, 176-184.
- Dickinson, W. L., & Ashby, J. S. (2005).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ego defense.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9, 41-54.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unkley, D. M., Lankstein, K. R., Masheb, R. M., & Grilo, C. M. (2006). Personal standards and evaluative concerns dimensions of "clinical" perfectionism: A reply to Shafran et al. (2002, 2003) and Hewitt et al. (2003).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63-84.
- Dunkley, D. M., Zuroff, D. C., Blankstein, K. R. (2003). Self-critical perfectionism and daily affect: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234-252.
- Fairburn, C. G., Cooper, Z., & Shafran, R. (2003).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eating disorders: A "transdiagnostic" theory and treat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509-528.
- Favaro, A., Ferrara, S., & Santonastaso, P. (2003). The spectrum of eating disorders in young women: A prevalence study in a general population sample. *Psychosomatic Medicine*, 65, 701-708.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G.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Garner, D. M., & Garfinkel, P. E. (1979). The Eating Attitudes Test: An index of the symptoms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9, 273-279.
- Gellman, A., Hill, J., & Yajima, M. (2012). Why we (usually) don't have to worry about multiple comparisons. *Journal of Research on Educational Effectiveness*, 5, 189-211.
- Grzegorek, J. L., Slaney, R. B., Franze, S., & Rice, K. R. (2004). Self-criticism, dependency, self-esteem, and grade-point average satisfaction among clusters of perfectionists and nonperfection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192-200.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m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zan, C., & Shaver, P. (1987) Conceptualizing adult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 524.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356-470.
- Iannatuono, A. C., & Tylka, T. L. (2012).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links to body appreciation in college women: An exploratory model. *Body Image*, 9, 227-235.
- Koskina, N., & Giovazolias, T. (2010). The effect of attachment insecurity in the development of

- eating disorders across gender: The role of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Psychology*, 144, 449-471.
- Kuipers, S. G., & Bekker, H. J. M. (2012). Attachment, mentalization, and eating disorders: A review of studies using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Current Psychiatry Review*, 8, 326-336.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0.
- Martin, J. L., & Ashby, J. S. (2004). Perfectionism and fear of intimacy: Implications for relationships.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2, 368-374.
- McKinley, N. M., & Randa, L. A. (2005). Adult attachment and body satisfaction: An exploration of general and specific relationship differences. *Body Image*, 2, 209-218.
- Pearson, C. A., & Gleaves, D. H. (2006). The multipl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their relation with eating disorder feat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225-235.
- Probst, M., Van Coppenolle, H., & Vandereycken, W. (1995). Body experience in anorexia nervosa patients: An overview of therapeutic approaches. *Eating Disorders: The Journal of Treatment and Prevention*, 3, 186-198.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ice, K. G., & Ashby, J. S. (2007). An efficient method for classifying perfection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72-85.
- Rice, K. G., Ashby, J. S., & Gilman, R. (2011). Classifying adolescent perfectionists. *Psychological Assessment*, 23, 563-577.
- Rice, K. G., & Dellwo, J. P. (2002). Perfectionism and self-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 188-196.
- Rice, K. G., Lopez, F. G. (2004). Maladaptive perfectionism, adult attachment, and self-esteem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6, 118-128.
- Rice, K. G., Lopez, F. G., & Vergara, D. (2005). Parental/social influences on perfectionism and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 580-605.
- Rice, K. G., & Mirzadeh, S. A. (2000). Perfectionism, attach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38-250.
- Rice, K. G., & Slaney, R. B. (2002).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almost perfect scale-revised on the colleg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Turkey.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8, 1150-1157.
- Sassaroli, S., & Ruggiero, G. M. (2005). The role of stress in the association between low self-esteem, perfectionism, and worry, and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7, 135-141.
- Slaney, R. B., Rice, K. G., Mobley, M., Trippi, J., & Ashby, J. S. (2001). The Revised Almost Perfec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4, 130-145.

- Shafran, R., Cooper, Z. & Fairburn, C. G. (2002). Clinical perfectionism: A cognitive-behaviou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773-791.
- Snyder, C., & McCullough, M. A. (2000). A positive psychology field of dreams: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151-160.
- Stober, J., & Otto, K. (2006). Positive conceptions of perfectionism: Approaches, evidence, challen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 295-319.
- Yang, K. S. (1997). Theories and research in Chinese personality: An indigenous approach. In H. S. Kao & D. Sinha (Eds.), *Asian perspectives on psychology* (pp. 236-262). New Delhi, India: Sage.
- Van den Berg, P., Wertheim, E. H., Thompson, J. K., & Paxton, S. J. (2002). Development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dolescent females: A replication using covariance structure modelling in an Australian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2, 46-51.
- Wang, K. T., Slaney, R. B., & Rice, K. G. (2007). Perfectionism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from Taiwan: A study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chievement motiv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1279-1290.
- Wei, M., Heppner, P., & Mallinckrodt, B. (2003). Perceived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438-447.
- Wei, M., Mallinckrodt, B., Russell, D. W., Abraham, T. (2004).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 mediator and moderator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ve moo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201-212.
- Wei, M., Heppner, P. P., Russell, D. W., & Young, S. K. (2006).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ineffective coping as mediators between attachment and subsequent depression: A prospective analy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67-79.
- Zachrisson, H. D., & Skarderud, F. (2010). Feelings of insecurity: Review of attachment and eating disorder. *European Eating Disorder Review*, 18, 97-106.
- 1차원고접수 : 2016. 01. 20.
심사통과접수 : 2016. 02. 25.
최종원고접수 : 2016. 03. 10.

Clustering by Female College students' Perfectionism and Attachment:
Group Differences on Appearance Dissatisfaction,
Appearance Orientation, Abnormal Eating Behavior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Eunha Kim
Ajou University

Chaeyoung Jeong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a) natural grouping of 211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two subscales of the Almost Perfect-Revised (high standard and discrepancy) and two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avoidance) and b) the differences on appearance dissatisfaction, appearance orientation, abnormal eating behavior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cluster groups.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yielded four groups. First, the 'nonperfectionism-stable attachment' group was characterized by low levels of high standard, discrepancy,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Second, the 'adaptative perfectionism-stable attachment' group, characterized by high levels of high standard and low levels of discrepancy,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reported the lowest levels of appearance dissatisfaction and depression, yet highest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ird, the 'maladaptive perfectionism-anxious attachment' group, characterized by high levels of high standard, discrepancy, and anxiety attachment and a low level of avoidance attachment, reported the highest levels of appearance orientation and abnormal eating behaviors. Lastly, the 'negative self-evaluation-unstable attachment' group, characterized by a low level of high standard but high levels of discrepancy,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appearance dissatisfaction and depression, yet lowest level of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Perfectionism, Adult Attachment, Appearance Dissatisfaction, Appearance Orientation, Abnormal Eating Behaviors